



- ▶ 과명 : 감나무과
- ▶ 학명 : *Diospyros kaki*
- ▶ 영명 : Kaki Perimmon
- ▶ 일명 : 까키

감 나 무



최 명 섭 |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내가 살던 집안 뒤뜰에 자라던 엄청나게 커다란 감나무 한그루를 장정 몇 사람이 동원되어 톱으로 베어 넘겼다. 그 감나무는 너무 커서 태풍에 넘어질까 염려도 되고 너무 늙어서 인지 감도 열리지 않아서 잘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그 감나무를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었다.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사갔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장을 만들어 팔면 몇 십배 돈을 벌 것이라 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벌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하였다. 임업을 공부 하면서 곧 알게 되었지만 감나무를 '유실수가 아닌 목재로 생산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어느 가을날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오래된 마을에 커다란 감나무에 빨갭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풍경을 보고 '관상수로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생태적 특성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15~20m에 달하고 경기 이남의 인가 부근에 과수용으로 식재한다. 추위에 비교적 강하여 경기도에서도 과수로서가 아니면 식재가 가능하며 수분이 적당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내염성이 강하여 해안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는 약하나 대기오염에 비교적 강하다.

2. 형태적 특성

수피는 코르크화 되고 잘게 갈라지며 회흑갈색(灰黑褐色)으로 어린 가지에 갈색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상 난형으로 길이 7~17cm, 넓이 4~10cm로서 두껍고 톱니가 없다. 꽃은 양성(兩性) 또는 단성으로서 5~6월에 피며 황백색이고 잎과 가지 사이에 달린다. 수꽃은 길이 1cm로 16개의 수술이 있으나, 양성화에는 4~16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의 암술은 길이 1.5~1.8cm이며 자방은 8실(室)이다. 열매는 난상 원형이며 지름 4~8cm로 10월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가을에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은 한가로운 농촌의 정취를 담고 있어서 향수를 느끼게 하며 우리나라 전통 조경양식에 잘 어울린다. 수형이 아름답고 가을의 단풍도 관상가치가 있어서 최근에 도심지의 관상수로 등장하고 있다.

감나무는 예로부터 일곱 가지 덕이 있다 하여 예찬을 받아온 나무다. 일곱 가지 덕이란 첫째 수명이 길고, 둘째 그늘이 짙으며, 셋째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넷째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다섯째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여섯째 열매가 맛이 좋으며, 일곱째 낙엽이 훌륭한 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버릴 것이 하나 없이 좋은 나무라는 뜻이다.


4. 번식법

재배목적에 따라 종자번식과 접목번식을 한다.

과수로 재배할 때는 감나무나 고욤나무의 종자를 과중하여 대목으로 하여 아접이나 절접을 통해 증식한다.

과수재배가 아닌 관상수 또는 경기도 이북의 지방에서 식재코자 하면 종자번식으로 묘목을 생산하여 식재하여 무방하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가공성이 좋고, 조직이 치밀하여 가구재, 기구재로 사용하며 감나무 잎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치료에 좋고 그 외에도 풋감은 천연 염료로도 사용한다. 



1. 감나무꽃
2. 감나무잎
3. 감나무, 경복궁
4. 수작업으로 감을 깎고있는 모습

